

少陽人 陽毒發斑 환자의 치험 1례

최정락* · 배효상* · 박성식*

Abstract

The Case Study of Soyangin Yangdokbalban(少陽人 陽毒發斑)

Choi Jeong-Rak* · Bae Hyo-Sang* · Park Seong-Sik*

*Dept. of San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Urticaria is acute febrile dermatopathy. Patients suffer from Urticaria, because It causes wheals, flare, itching and so on. It occurs usually. 15%~20% of all people experience it in one's whole life. This case is about one patient who suffered from urticaria. He was controled by western medicine, but he was not treated. We diagnosed his case as Soyangin(少陽人) Yangdokbalban(陽毒發斑), We observed his bowel movement condition, he had constipation. Our objective was that his bowel movement condition would be normal. So we and used Soyangin(少陽人) Yangdokbaekho-tang(陽毒白虎湯). As a result of this treatment, his symptom vanished.

Keywords : urticaria, dermatopathy, Yangdokbalban(陽毒發斑), Soyangin(少陽人), Yangdokbaekho-tang.
(陽毒白虎湯)

I. 緒 論

陽毒은 疫毒을 感受하여 발생하는 病證을 말하며, 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피부 표면에 발생하는 紅色, 紫色, 黑色의 斑點을 가리키는 것으로 陽毒發斑은 일종의 急性 熱性 皮膚疾患을 의미한다.

『東醫壽世保元』¹⁾에서는 陽毒發斑에 대하여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 언급하고 있으며,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는 少陽人의 陽毒發斑의 처방으로 陽毒白虎湯을 설정하고 있다.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는 傷寒으로 熱多寒少한 사람이 鶩고기탕을 먹고 발생한 陽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최정락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우) 463-020 전화) 031-710-3723
E-mail : doolarge@hanmail.net

毒發斑을 石膏를 위주로 치료한 치험례를 기록하였고,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는 少陽人에서 陽毒發斑은 병이 든 때부터 이미 險證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病勢의 重함을 언급하고 있다.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는 太陰人의 陽毒證을 朱肱의 『活人書』과 龔信的 『醫鑑』을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東武 역시 이에 대하여 마땅히 葛根解肌湯과 黑奴丸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는 陽毒發斑의 治方으로 陽毒白虎湯을 설정하면서 “治陽毒發斑 便秘者 宜用”이라 하여, 處方 사용의 기준을 언급하였다.

이렇듯이 少陽人, 太陽人에서 나타나는 陽毒發斑은 모두 火熱이 熾盛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急性 熱性 皮膚疾患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두드러기(蕁麻疹, Urticaria)가 있다. 두드러기는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피부질환으로서, 片狀의 發疹과 紅斑, 熱感, 瘙癢感을 주로 호소하는 疾患이다. 전 인구의 15~20%는 일생 중 적어도 한번 이상의 두드러기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에 저자는 양방에서 급성 두드러기로 진단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한방치료를 위하여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를 少陽人의 陽毒發斑으로 판단하여 치료한 결과, 完治된 證例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Ⅱ. 證 例

1. 환자 : 전○○, 남자, 34세
2. 주소 : 全身性 皮膚赤色發疹, 瘙癢症, 發熱感
3. 발병일 : 2003년 3월 10일경(내원 약 12일 前)

4. 치료기간 : 발병일 당일 분당○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주사제 등의 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주사제를 사용하였고, 양방 Medication을 하루 3회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심한 상태로, 2003년 3월 22일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로 내원하여, 2003년 3월 27일까지 외래에서 통원치료 받은 환자이다.

5. 과거력 : 別無

6. 가족력 : 別無

7. 사회력 : 음주력이나 흡연력은 없었다.

8. 현병력 : 상기자는 만 34세의 보통체격의 남환으로, 2003년 3월 10일경 선지 해장국을 먹고 난 이후, 전신적으로 피부에 發疹과 瘙癢感, 發熱感이 발생하였다. 이후 분당○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주사제 등의 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주사제를 사용하였고, 양방 복약을 1일 3회 시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증상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심하였으며, 복약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재차 증상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복약으로 증상이 약간 진정된 것이지 복약을 중지하면 피부가 부풀어오르면서 증상이 재발하고 참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耳內와 頭皮에도 발진이 있으며, 熱氣가 몸통으로부터 얼굴이나 머리로 치우치고,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洋藥을 복용한 이후 잠이 오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환자는 한방 치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2003년 3월 22일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로 내원하였다.

9. 초진소견(review of system)

全身症狀 : 全身의으로 피부에 發疹이 있어, 體幹과 四肢 및 頭面部, 頭皮, 耳內에 까지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癢痒感과 發熱感을 동반하였다. 熱氣가 體幹에서부터 頭面部로 上衝感이 있으며, 심한 경우 呼吸에도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食事 : 不良

消化 : 不良

大便 : 便秘 경향. 大便이 단단하다.

小便 : 良好

舌診 : 苔厚黃

脈診 : 浮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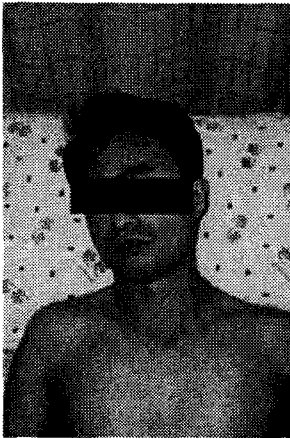
나고 있으며, 심한 癢痒感과 함께 發熱感을 동반하였다. 熱氣가 體幹에서부터 頭面部로 上衝感이 있었다. 심한 경우 呼吸에도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口乾, 苔厚黃, 脈浮緊하였으며, 大便이 다소 굳은 경향으로 便秘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Fig 2).

우선 左右側 手 1指와 足 1趾를 瀉血하였고, 右側 少海, 太白, 太谿에 留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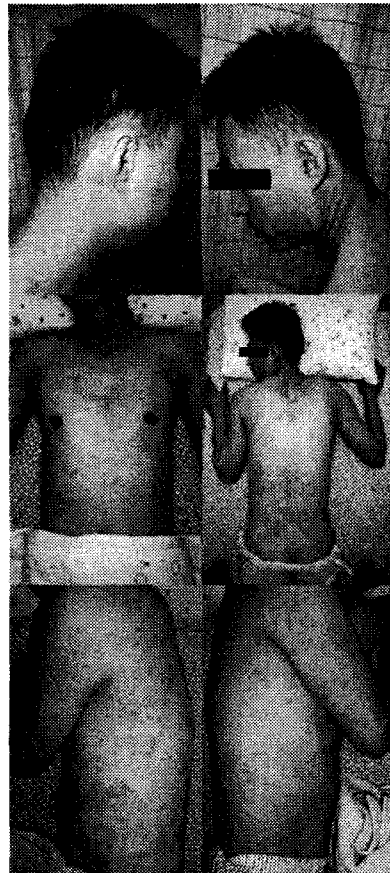
상기 환자를 임상적으로 少陽人으로 판단하였고, 호소 증상에 대하여 陽毒發斑으로 판단하였고, 便秘의 경향을 동반하여, 少陽人 陽毒 白虎湯을 10첩(1일 3회 복용, 5일분)을 투약하였다.

10. 체질소견

환자는 키 171.6cm, 몸무게 56.2kg이며, 약간 왜소하나, 다부진 체격이었다. 흉곽이 각이 큰 편이다. 빠른 걸음걸이와 맺고 끝맺음이 확실하였다. 임상적으로 少陽人으로 판단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법에 의해서도 少陽人일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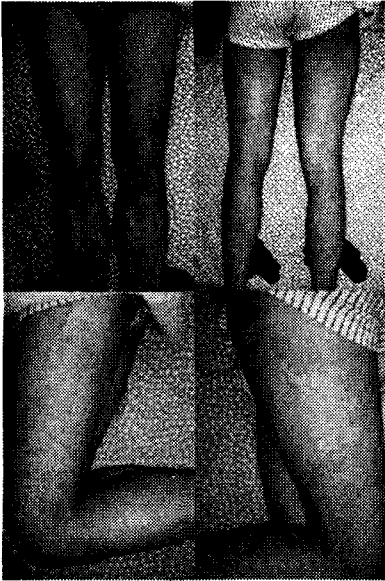
<Fig 1. Face>



11. 치료경과

① 2003년 3월 22일

全身的인 皮膚 發疹이 있어, 體幹과 四肢 및 頭面部, 頭皮, 耳內에 까지도 증상이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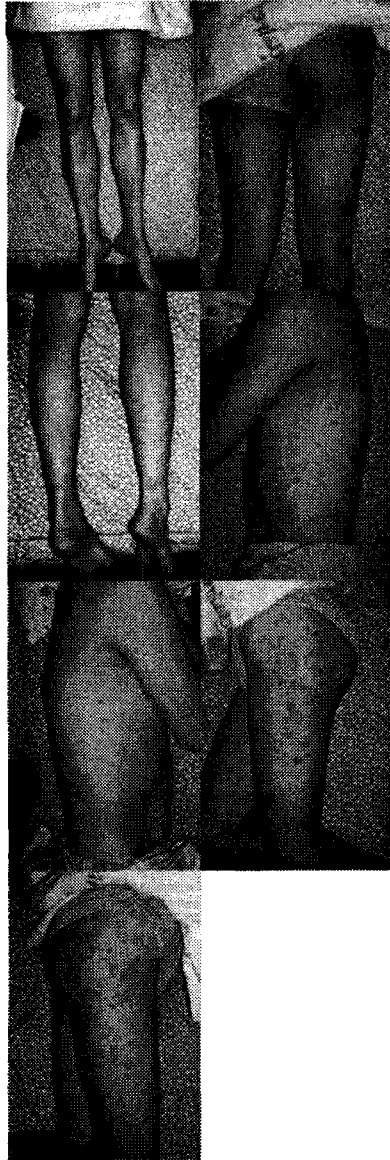


<Fig 2. Skin condition at Mar. 22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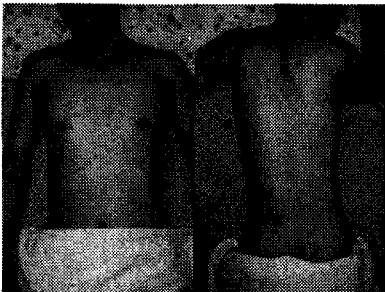
② 2003년 3월 25일

湯藥은 3월 23일부터 복용하였으며, 湯藥 복용 이후 洋藥은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피부의 發疹과 耳內를 비롯한 全身의 瘙癢感 緩和되었다. 體幹으로부터 頭面, 頭皮로 熱氣의 上衝感의 減少와 口乾의 증상도 緩和되었다. 더불어, 發疹의 부위와 면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 2003년 3월 24일 저녁, 1차례 皮膚 發疹과 瘙癢感이 발생하였다 (Fig 3).

湯藥 복용 후 1일에는 泄瀉를 하였으나, 이후 大便이 점차 모아지며 泄瀉를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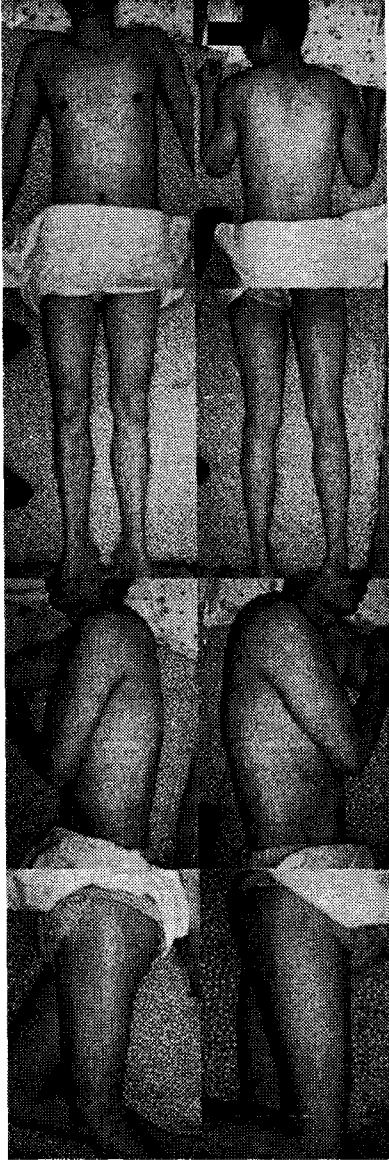
<Fig 3. Skin condition of Mar. 25th>



③ 2003년 3월 27일

皮膚 發疹과 瘙癢感 및 發熱感이 소실되었다(Fig 4). 환자는 3월 26일 아침부터 뱃속이 약간 불편하고, 藥이 부담이 되는 느낌이 있고, 3월 27일 다시 泄瀉를 하였다. 그러나, 舌苔가 舌根部로 厚白한 양상을 나타내어, 아직 裏熱證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涼膈散火湯에

石膏 半錢(2g)을 줄여서 10첩(1일 3회 복용, 5일분)을 투약하였다.



<Fig 4. Skin condition of Mar. 27th>

Ⅲ. 考察 및 結論

陽毒은 疫毒을 感受하여 발생하는 病證으로, 『金匱要略』「百合狐虵陰陽毒病脈證治」에서

는 “陽毒이 발병하면 얼굴에 비단 무늬 같은 붉은 斑點이 생기고 咽喉가 아프며 膿血을 뱉는다.”라고 하였고, 후세의 瘟疫, 溫毒發斑과 유사한데, 얼굴이 붉어지므로 “陽毒”이라 한다고 하였다.³⁾

또한, 斑에 대하여 『諸病源候論』「時氣病諸候」⁴⁾ 熱邪가 表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피부 표면에 발생하는 紅色, 紫色, 黑色의 斑點을 가리키며, 斑點이 크고 片狀을 이루며, 손으로 문질러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陽證發斑은 實熱性이며, 陰證發斑은 虛寒에 속하는 發斑으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火가 胸中에 모여 상부의 肺를 薰蒸하여 皮膚로 전해져 斑이 생긴 것이라 하였다.³⁾

결국, 陽毒發斑은 火邪나 熱邪가 熾盛하여 皮膚에 發疹性 疾患을 일으키는 病態이며, 實熱에 의해 頭面部 외에도, 體幹, 四肢에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疾患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陽毒發斑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과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서 언급되고 있다.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는 “其後 又有 少陽人一人 得傷寒熱多寒少之病 有人 教服雉肉湯 仍成陽毒發斑 ……”라고 하여, 傷寒으로 熱多寒少한 사람이 꿩고기탕을 먹고 발생한 陽毒發斑을 石膏를 위주로 熱證의 범주에서 치료한 경험을 기록하였다.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서는 “(…… 少陽人裡病 大便 過一晝夜有餘而不通 則自是裏病明白易見之初證也 若復大便 過三晝夜不通 則危險矣 背癰腦疝唇瘡纏喉風咽喉等病 受病之日 已爲危險證也 陽毒發斑流注丹毒黃疸等病 受病之日 已爲險證也 ……”이라고 하여, 陽毒發斑은 병이 든 때부터 이미 險證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病勢의 重함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서

는 陽毒白虎湯을 설정하였고, “治陽毒發斑 便秘者 宜用”이라 하여, 便秘가 陽毒發斑에 陽毒白虎湯을 사용하는 기준이 됨을 말하고 있다.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서는 “朱肱曰 陽毒 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 黑奴丸 陽毒及壞傷寒 醫所不治 精魄 已竭 心下 尚煖 斡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이라 하였으며, “三陽病 深 變爲陽毒 面赤眼紅 身發斑黃 或下利黃赤 六脈 洪大 宜黑奴丸”이라고 하였으며, 東武 역시 이에 대하여 葛根解肌湯과 黑奴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少陽人, 太陽人에서 나타나는 陽毒發斑은 모두 火熱이 熾盛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急性 熱性 皮膚疾患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두드러기(蕁麻疹, Urticaria)가 있다.

두드러기(蕁麻疹, Urticaria)²⁾는 피부의 혈관 반응으로서 특징적인 膨疹(피부의 진피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종)이 나타나고, 그 주위를 붉은 발적(紅斑, flare, erythema)이 둘러싸고 있으며, 심한 癢痒感을 동반하는데, 이는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피부질환으로서, 전 인구의 15~20%는 일생 중 적어도 한번 이상의 두드러기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편의상 급성과 만성 두드러기 구분하며, 급성 두드러기는 일반적으로 수일 또는 수주간 지속된 후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를 말하며, 곤충자상, 음식물 알레르기, 페니실린(penicillin)이나 설펜아미드(sulfonamide)와 같은 약물 등에 의해서도 잘 발생하나, 그 원인을 찾기 못할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인 물질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면 두드러기를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만성 두드러기는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적어도 6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상이 쉬지 않고 매일 발생하는 지속형(continuous type)과 수일 또는 수주일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간헐형(episodic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밝히는 것이며, 이는 치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며, 항히스타민제가 두드러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가 된다.

상기 환자의 皮膚發疹은 환자가 선지해장국을 먹고 난 이후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發疹의 양상이 크기가 다양하고, 부종성의 평평한 융기를 이루고 있었으며, 타원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을 지닌 것이 膨疹(Wheals)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膨疹은 하나씩 떨어져 존재하거나 여러 개가 모여서 단단한 판을 만들며 수분 내에 생겨서 서서히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때는 대부분 癢痒感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으로, 상기 환자는 전신적인 皮膚發疹이 膨疹의 양상을 보였고, 紅斑과 熱感, 그리고 癢痒感을 호소하고 있었다.

양방적으로 급성 두드러기로 판단되어지는 상황에서, 환자는 발병일 이후 지속적인 양방 처치 및 투약을 받아왔으나, 증상의 완화가 있으나 여전히 심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발병 후 약 2주 후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임상 소견 상에서 少陽人의 陽毒發斑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大便이 점점 굳어지는 지는 느낌과 함께 便秘 양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上熱感, 口乾, 苔厚黃, 脈浮緊하여, 少陽人의 裏熱證이 極甚한 裏熱便閉證으로 판단되어 陽毒白虎湯(石膏 20g, 生地黃 16g, 知母 8g, 荊芥, 防風, 牛蒡子 各 8g)을 투약하였다.

환자는 韓藥 복용과 동시에, 洋藥의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陽毒白虎湯 복용 첫째 날에 泄瀉를 하였으나 이후 便이 다시 모아지고 있었다. 복용 후 3일경에는 皮膚發疹의 면적 감소와 더불어, 熱感, 癢痒感, 口乾의 양상이 緩和되고 있었다. 복용 5일째에는 皮膚發疹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시에 陽毒白虎湯의

복용이 부담스럽고, 속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泄瀉를 수반하였다. 그러나舌根部의舌苔가 아직厚白한 양상을 보여 아직胸膈熱證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涼膈散火湯(生地黃,忍冬藤,連翹各 8g,山梔子,薄荷,知母,石膏,防風,荊芥各 4g)에서石膏를 2g 줄여서 투약하였다.

처방의 사용기준으로大便을 설정하였으며,초진시 급격한 피부증상과 함께便秘의 경향을 동반하고 있으므로,裏熱證의 범주에서 다루었다.陽毒白虎湯의 사용기준인“治陽毒發斑便秘者宜用”에 의거하여 초기 사용 처방을陽毒白虎湯을 설정하여 10첩(5일분)을 투약하였다.湯藥 복용과 동시에泄瀉를 1회 하였으나, 이후泄瀉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투약을 지속하였다. 5일째부터,消化不良을 호소하며,泄瀉가 지속되었고, 피부증상의 소실이 나타났으므로,陽毒白虎湯의 투약을 중지하였다. 그러나,舌苔가舌根部로厚白한 양상이 있어서, 아직裏熱證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판단하여,涼膈散火湯에서石膏의 용량을減하여 투약하였다.

급격한 증상의 발현과 발병일 이후 양방치료에 크게 반응이 없는 환자의 급성 두드러기를「少陽人胃受熱裏熱病」에서 언급한 발병하면서 이미險證에 속하는陽毒發斑으로 판단하고,“治陽毒發斑便秘者宜用”이라고 설명을附加한陽毒白虎湯을 이용하여裏熱便閉證을 조절함으로써,少陽人陽毒發斑의 신속한 호전을 경험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著, 동의학연구소 譯. 東醫壽世保元 (개정판). 서울. 여강출판사. 2002.
2.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편저. 개정3판 피부과학. 서울.麗文閣. 1994: pp 173~179.
3.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677, p.1448, p.1469, pp.1774~1775.
4.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93.